

# 중국 국방예산 22% 증가, 동북아 위기 고조

**탈냉전** 이후 세계적인 군비 축소의 분위기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계속되는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감이 늦추어 지지 않던 동북아에 군비 팽창의 바람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5백20억4천만 원(약 5조 원)으로 책정하여 지난해에 비해 22%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규모면에서 지난 89년 국방예산의 2배이며 증가율로 따져도 지난해보다 약 5.2%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중국의 평시 국방비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류중리 중국 재정부장은 11일 속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93년 국가예산집행 정황 및 94년 국가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상 예산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4천4백89억1천1백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11.6%인 5백20억4천만 원을 국방비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군 지도층은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중국이 올해 6백69억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예상함에도 국방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한 것은 군사력 팽창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을 일축해온 중국의 기본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 등 주변국과 서방쪽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의 야심찬 군비확장은 냉전이 소멸되고 민족주의의 기운이 특히 드높아지고 있는 주변 아시아 각국에 자위에 대한 필요성을 점증시켜 세계적 군축 분위기속에 유독 아시아만은 군비확장이라는 역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은 지난해에 92년보다 14.8%를 늘려 편성했던 국방예산에서 1.8%가 초과된 4백32억4천8백만 원을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사진은 천안문 광장을 가로지르는 중국 전차)